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11월 14일 (제112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우 컬럼

사람이 경쟁력이다

“목사님은 해외에도 자주 나가시고, 지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교회가 잘 운영되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의 답은 이랬다. “잔뿌리가 튼튼하면 문제없지요.”

나는 우리 교회의 곧은 뿌리다. 버팀목이란 뜻이다. 그러나 나무는 곧은 뿌리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잔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것은 잔뿌리가 잘 뻗쳐 있어서다.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님, 또한 조장·구역장들이 잔뿌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기에 예수중심교단이라는 나무는 실하다.

한 단체에서 지도자는 곧은 뿌리로 정체성을 지키는 자이고, 잔뿌리는 영양분을 흡수하여 나무가 자라게 하는 실무진이다. 그러므로 나무가 잘 자라려면 잔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을 잘 써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쓰는 데 매우 신중하다. 전도서에도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전7:28)고 했으니 신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사람을 쓸 때 기준을 삼는 것이 있는데, 인재를 우선으로 쓴다는 것이다. 200~300년 전에는 10만~20만 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는 충성된 자를 쓴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는 말씀을 근거에 둔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신 것, 바울이 보배나 브리스가와 아굴리를 택하여 복음의 동역자로 삼은 것, 다윗이 37명의 충성된 일꾼과 대업을 이룬 것이 그렇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는 말씀이 진리임을 나는 목회 37년 동안 실제로 체험했다. 충성된 자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배신하지 않고, 오해가 없으며, 부지런하며, 지시한 것 이상을 해놓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농사꾼이 씨앗을 잘 골라 옥토에 뿌려야 풍년이 든다. 사업도 목회도 사람을 잘 골라 적재적소에 심으면 풍년이 든다. 사람을 잘 골라 써라. 사람이 경쟁력이요, 영향력이요, 힘이다.

교회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교회의 개혁은 1세기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타성에 젖은 오늘의 한국 교회의 개혁, 혁신을 말할 때마다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말씀이다.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개혁이요, 혁신이라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

인들,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을 포함한 120명의 무리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해 힘썼습니다. 그들이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방언과 각종 은사가 임했을 뿐 아니라 베드로의 가르침에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아 제자가 되었으며, 제비뽑기를 통하여 가롯 유다 대신 마티아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초대 교회 역사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고, 초대 예루살렘교회를 기도로 세웠다고 사도행전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기도운동을 통해 성령의 대폭발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그 기도의 터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중심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철산리에서 1명을 놓고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중심교회는 오직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학생체육관 금요철야, 메인스타디움집회 등을 통해 전국에 소동을 일으켰



KBS88체육관 주일예배 전경

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돈벌고 사업하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고 질타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정치가나 사업가, 학자를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곳,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로 키우는 곳입니다. 나는 목회 37년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명을 걸고 무엇이든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의 길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여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부활했다고 증거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같이 능력이 임한다고 소문에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2:42).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해 힘쓰니라’(행1:14).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온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고, 천사가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어 풀어주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며 찬미하니 땅이 진동하며 옥이 무너져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고, 전 세계 72개국에 복음의 가지가 뻗어 나갔습니다. 기도로 능력을 받은 자들이 처처에 기도처를 세웠고, 선교사들이 배출되어 전 지구촌에 기도처가 세워졌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니 부흥하고 성장하여 오늘의 세계교구를 이룬 것입니다.

무너진 기도의 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시 기도처에 모여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과 능력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처럼 모두가 전혀 기도하여 성령과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고, 기도로 역전시키는 능력의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위드코로나, 단계적 원상회복 조치로 50% 대면예배 실시)

주일에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9:7~12)

배움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다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입니까?”
어느 청년 석학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마음에 맞는 자를 찾는 자’라고 답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이 왜 피곤합니까? 안 맞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내 적성에 안 맞으니까 일이 힘들어 인생이 고달프고, 전공과목이 안 맞으니 공부를 해도 늘 그 자리이고, 신발이 안 맞으니 발이 부르트고 까지는 것이고, 옷이 안 맞으니 잘생긴 인물이 무너리가 되고, 배우자가 서로 안 맞으니 매일 외장창 중창 싸우며 ‘큰집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잠21:9)는 말씀을 되뇌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맞으면 신나지요. 일을 즐기면서 하나씩 신바람 나고, 신발이 맞으니 멀리 가도 피곤치 않고, 옷이 맞으니 인물이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니 매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래는 바다가 제일이고 호랑이는 산에서 으뜸이다

안 맞으면 인생이 피곤하고 불행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런데도 선택의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내게 맞는 것보다는 남의 눈에 맞는 것을 찾습니다. 남이 볼 때 좋은 직업, 누가 알아주는 전공,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품 신발, 명품 옷, 어디에 내놔도 품 잡을 수 있는 신랑감, 신부감을 택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맞으면 뼈격거리고, 안 맞으면 아프고, 안 맞으면 능률이 안 올라 처지게 되고, 안 맞으면 싸우게 됩니다. 음식도 안 맞으니까 뱃속에서 구라과전쟁이 일어납니다. 캐나다에서 골프화 고른 일, 많이 들으셨지요?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주최 측에서 골프를 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준비가 없던 터라 다른 건 대여를 한다 해도 골프화만은 사야 했습니다. 발이 불편하면 18홀을 다 돌 수 없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안내를 받아 골프샵에 갔는데 멋지고 비싼 신발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은 비싸고 좋은 것으로 사라고 성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쪽 귀통이에 있는 저렴한 운동화를 택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란 내게 맞는 것이다’라는 진리를 저는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품화 신으면 폼은 나지요. 그런데 제게 안 맞는다면, 신어서 제가 불편하다면 골프를 치는 내내 힘들었을 겁니다. 18홀은 커녕 9홀도 못 갔을 겁니다. 남에게 보여 주려고, 과시하려고, 체면 때문에 내게 맞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남들은 부러워하겠지요. 남 앞에서 폼은 잡겠지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죽을 맛일

겁니다. 장담컨대 그 인생 끝까지 못 갑니다.
다 자기에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맞는 직업, 맞는 옷, 맞는 배필, 맞는 친구, 맞는 음식... 왜냐? 하나님이 각자를 쓰임에 맞게 이미 만들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 2:20~21)
는 말씀이



총회장 이초석 목사

성경에 있었지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쓰임에 따라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드신 겁니다(사64:8). 물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금그릇이 비싸니까, 다들 귀히 여겨주니까 다 금그릇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으로 칠을 해서 금그릇인 체 합니다. 그렇다고 금그릇이 됩니까? 몇 번 닦으면 금칠이 벗겨지고 본색이 드러나, 곧 한계에 부딪쳐 불행을 맞게 됩니다. 나무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요즘 나무그릇이 얼마나 대접을 받는데요. 질그릇이 투박해도 똑배기로 쓰면 아주 제격 아닙니까. 하나님은 ‘금그릇만 귀한 게 아니다. 어느 그릇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깨끗하게 살 때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니냐? 왜 저 사람만 은그릇이냐?’ 하며 불평을 합니다. ‘저 사람은 다리도 긴데 나는 왜 이리 짧게 만들었나?’,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한 번만 배우면 척척 다 하는데 나는 왜 새머리인가?’, ‘저 사람은 손재주가

있는데 나는 왜 뚱손?’ 등등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롬9:20~21).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게 만드셨습니다. 김연아는 운동 중에서도 피겨스케이팅을, 손흥민은 축구를 잘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바느질을 잘하게 하였고, 어떤 사람은 힘 쓰는 일

을 구 보 다 잘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으니 잘하는 것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잠16:4).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다 교사가 될 수 없듯이(고전12:29), 신체에도 눈이 있고, 발이 있듯이(고전12:17)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행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래서 신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운명이나 팔자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적성을 찾아 개발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겁니다.
한 집에 개와 닭이 살았습니다. 개는 매일 밤 주인집을 지키느라고 뜰 눈으로 밤을 새우건만, 닭은 폭 자다 동틀 무렵에나 일어나 ‘꼬꼬’ 하고 한 번 울뿐인데 주인은 늘 닭에게만 고맙다고 했습니다. 개는 은근히 부아도 나고, 칭찬받는 닭이 부러워 어느 날 동이 트기가 무섭게 지붕 위로 올라가 힘겹게 닭소리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저 개가 똥쌌나? 이 건 흥조야.’ 하고는 하인들에게 미친개를 당장 없애라고 명령했지요. 닭의 것을 탐내면 이 꼴 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

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다. 멋진 그릇이었습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다윗의 그릇을 넘겨다보았습니다. 어찌 다윗의 그릇이 더 멋져 보였습다. 거기에 백성들이 찬사를 보내니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도 발동하여 이성을 잃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 사울은 자기 그릇을 깨고 맙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남의 잔디가 늘 더 푸르려 보여서 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본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니까요. ‘저건 좋아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구나.’ 해야 합니다. 사사기 9장에 이런 우화가 나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누군가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 하니 감람나무가 말하길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왕이 되리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되라 하니, 그 왈,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라고 했고,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 했더니 그도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버릴 수 없노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어리석은 가시나무만 할 줄도 모르면서 ‘왕이 되겠노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벗어나면 고달프게 됩니다.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고,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약3:12). 그러니 내 것을 찾으세요. 못하는 것 하면서 진 빼지 마세요. 제발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억지추향도 하지 마세요.

토기장이 원망 말고 너에게 맞는 것을 찾아라

저는 목사가 적성에 딱 맞습니다.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와도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스타일이 딱 맞기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혜 중의 지혜가 무엇이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12:3).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적성을 찾아 그것에 주력하면 성공과 행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테이퍼링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

지난 11월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월부터 테이퍼링을 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팬데믹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집행해온 대규모 양적완화책이 20개월 만에 종결되었음을 공표하였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와 같은 양적 완화로 인하여 최근 5분기 연속 지표상 성장을 기록하여 개선된 것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Fed가 테이퍼링에 착수한 것은 최근 주요 산업의 공급망 불균형이 일시적이지 않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국내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지만 현재 미국은 각종 산업과 반도체, 그리고 동맹 강화 등을 통하여 중국을 다각도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소련의 GDP가 자국의 40%에 도달하였을 때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하여 연방을 해체시켰고, 일본의 GDP가 40% 선에 근접했을 때 플라자 합의를 통하여 엔화를 강제 절상시키면서 한국과 중국을 배양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미국 GDP의 73% 선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사족생의 각오로 전방위적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GDP상으로는 건설 및 부동산 개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

조 및 수출이 국가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및 유지동력입니다. 따라서 항시적으로 외환 및 외화여신에 대한 수요가 어떤 국가보다 높기 때문에 유럽의 금융기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중국 은행들에게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연합한 대부분의 유럽 은행들은 중국과 여신에 대한 장외 콜거래를 수년째 중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까지 강력한 거래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테이퍼링 조치가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세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킬 수 있는 도화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들은 북한 핵 위협, 그리고 1,800조의 가계부채, 그리고 200%를 상회하는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은 상시적인 퍼펙트스톰으로 진화할 수 있어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것을 인식하고 각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첨단기법, 혹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미래를 확정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고자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 통계이고 참고자료일 뿐이지 절대로 확정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만 기도드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확신합니다.

임윤석

:: 성경에세이 ::

아직 청춘이야!

여보게!

연젠가 집회 가는 길에 잠시 문경새재에 들린 적이 있네. 거기에 갔더니 박물관이 있더군. 온 김에 박물관 관람이나 하고 가야겠다 하고 입장료를 보니까 일반 성인이 2천 원이더군. 근데 65세 이상은 경로우대로 공짜라는 거야. 우리 애들이 ‘목사님은 공짜인데요.’ 하길래 내가 버럭 했네. “아니, 2천 원 때문에 노인이 되라는 거냐?” 애들이 내 말에 웃어댔지만, 진심으로 경로우대가 고맙지 않더군. 사우나 회원 중에서도 이제 지하철이 공짜니까 그거 타고 놀러 다니자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절대 그런 사람하고 안 논다네. 내 맘은 아직 청춘이야. 비록 머리는 많이 빠져 뻥뻥 보이고, 파뿌리처럼 흰 머리가 많지만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네. 솔직히 생물학적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 몸이 예전 같진 않네. 하지만 나는 생물학적 나이를 정신적 나이로 누르고 산다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거든.

여보게!

‘나는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늙은이가 되는 거라네. 여기저기 몸이 쭈시고 정

신도 오락가락하게 되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뇌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네. 내 말이 아니야. 실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라네. 그러니 늙었다는 생각을 버려야하네.

요즘 100살은 무난히 사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 우린 장년에 불과해. 우리에게도 여전히 열린 사고와 호기심, 열정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젊은이만의 특권이던가? No!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네. 뜬말이 잘 든 밥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폭 익은 된장처럼 깊은 맛이 있는 나이가 된 거지. 또한 지혜의 웅덩이가 넓어지고 깊어졌다 할 수 있지. 젊어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산 경험들이 많아진 게지.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좋다네. 내 평생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나는 생각하네.

자네도 괜히 노인처럼 애들 앞에서 무조건 훈수나 두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교감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게나. 얼굴의 주름은 없앨 수 없지만, 마음의 주름은 없어질 거야.

우린 아직 청춘이야!

朋友

중고등부 교사 봉사를 시작하고 영상팀 담당 교사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학생들에게 영상을 촬영하거나 편집하는 방법들을 옆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줬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는 무난하게 잘하는 듯 했으나 막상 혼자 해보라고 하면 당황했고, 배운 것조차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떻게 가르쳐줘야 효율적인 방법이 될까?’ 생각하다가 이것저것을 혼자서 해보도록 시간을 주었다. 처음에는 이것이 더디 익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점차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정보를 찾아서 모르는 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됨을 알게 되었다.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는 습득방법이 유용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경험이 이론을 앞선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목사님은 늘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

다’고 말씀하신다. 어느 분야든 대학에서 이론을 배웠어도 현장에 나가면 이론이 무색해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 경험이 가장 큰 지식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무슨 일이든 기도로 해결하지 않은가. 그들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방법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승부한다. 왜?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경험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하면서 터득할 때 더디고 힘들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터득할 때 그 경험은 평생 내 지식이 되고, 내 자산이 된다.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은 ‘내 경험을 어떤 문화적인 지식 앞에 팔아먹지 말라’고 늘 말씀하신다.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경험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은성
es2563@naver.com



:: 낮은 울타리 ::

따뜻한 기다림

‘해와 바람’이라는 이솝우화에서 해와 바람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하게 됩니다. 바람은 온 힘을 다해 입김을 불지만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지 못합니다. 반대로 해는 웃으며 따뜻하게 나그네를 비추었고, 더워진 날씨에 나그네는 외투를 벗어버리고 갑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허물을 벗어가는 과정도 이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벗기시고 새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세에 예수중심교회 서울대학부에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의 저는 감정이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좋아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런 저를 담당했던 대학부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는 저의 이런 행동을 단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와 저의 동기들이 교회 안에서 적응하고 신앙이 자랄 때까지 안전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된 데에는 그 기다림이 컸습니다. 그 따뜻한 덕분에 저는 한 겹

두 겹 세상의 겉옷을 벗어가며 예수님의 세마포를 입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91년도 설교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때가 많은 사람은 목욕탕에 오래 담그고 있으면 때가 벗겨지듯이, 교회에 와서 폭 담그면 알아서 세상 때가 벗겨집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때가 벗겨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폭 담겨 저절로 허물이 벗겨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억지로 때를 벗기면 상처만 나듯 기다림과 사랑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상처가 나기 마련입니다.

은연중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신앙생활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며 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바람 같은 크리스천인지, 해와 같은 크리스천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과거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사람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아닌 내 이웃을 감싸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스한 기다림과 사랑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햇살 같은 크리스천이 됩시다!

장수정

예수님짜리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20세기 초, 이탈리아에 한 청년이 있었습
니다. 그에게는 독특한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민이 되는 상황마다 동전
던지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예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었습니다. ‘파리의 적
십자사로 전근을 가느냐, 어느 디자이너
가게에서 일하느냐.’
그는 앞면이 나오면 디자이너 샵으로, 뒷
면이 나오면 적십자사로 전근을 가기로 마
음먹었습니다. 결과는 앞면이 나와 디자이
너 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패션
계에 발을 들이게 된 그는 곧 재능을 인정
받아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 디오르(Dior)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디올이 죽고 후계자로 지명된
그는 또 다시 동전을 던집니다. ‘회사에 남
아 디올의 뒤를 이을 것인가 아니면 독립
하여 내 이름으로 가게를 낼 것인가?’ 결국
독립을 택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
랜드를 만들었고, 우리는 지금 그 브랜드를
‘피에르 가르탱’이라 부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운이 정
말 좋으시네요. 동전을 던져서 좋은 선택
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그는 말
했습니다. “동전 던지기가 좋은 선택을 하
도록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든 일단
결정한 후에 믿음을 갖고 밀고 나간 것뿐
이니까요.”
살아가며 마주하는 많은 선택 앞에서 우
리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
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옳은 선택인지
를 알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때론 나보다
앞선 사람들의 조언을 주의 깊게 들어보기도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동전 던지듯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 후 우리 ‘믿
음의 실력’에 근거하여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는 결단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어
려운 선택의 순간 성경책을 잡고 성경을
펼쳐 그 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결
정한다고 합니다. 성경책으로 점을 치는
것이지요. 이는 믿음의 실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일회적인 선물입니다.
믿음은 구원 후 성화에 이르는 연속적인
연단과 훈련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나
가는 실력이며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들로서 차별은 없지만 믿음의 실력에 따라
구별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
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막
4:4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
는 들쭉돌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

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눅12:28).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있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믿음에는
구분과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즉, 믿음은 실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들어갑니
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하여 좋은 성
적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제일 쉬웠어요!”라는 수능 수석합격자의
말을 들을 때 부럽기는 하지만 솔직히 재
수 없고 앞에 있으면 따귀를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
데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다고 하면 이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에도 명
문대학 합격을 위해서는 피땀 나는 노력
과 수많은 예비시험을 거쳐 대학이 요구
하는 성적과 실력이 요구됩니다. 자녀 중
에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대학에 가는 것
이 너무 어려워서 학업을 그만두고 부모
님의 지원과 등록금 등 뒷바라지 걱정을
떨어드리겠다고 학교를 자퇴하고 지하철
에서 껌이나 물건을 팔아 그 돈을 모아 부
모님께 가져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대견한 내 자식, 훌륭하다. 계속
지하철 타고 껌이나 물건 팔아 돈 벌어 오
너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초
리를 들고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구나.” 하
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
프지 않고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
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고난의 십자가에 내
어주시면서 까지 죄악의 수렁에서 구원하
셨습니다. 명품을 구입할 때 수억 원을 지
불하면 수억 원짜리 명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런 우
리가 하나님 걱정을 떨어드린다며 지하철
에서 껌이나 물건을 팔고 그 재물로 현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
노하시며 우리를 풀무불에 내어던져 연단
하시며 훈련시키십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
활 하는 중에도 고난과 힘든 난관들이 찾
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한 훈
련과 연단을 통해 어디에 내어놓아도 빛나
는 명품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만
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 된 우
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
오리라”(욥23:10),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
하시느니라”(잠17:3), “인내는 연단을 연
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4),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
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함이라”(벧전1:7).
우리 예수중심교단이 실력 있는 이유는 총
회장 목사님을 필두로 모든 목회자들이 주
를 위해 수많은 핍박과 비난과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단에서 제명, 출교조
치 등 갖은 고초와 난관 속에서 기도하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약한 병자들이 신유
의 은사로 치유되고, 해외 80여 개 나라
에 복음을 전하는 교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최고 명품교단이 되었습
니다. 모두 하나님의 역사이고 연단 후 받
은 축복입니다.
오늘 힘들고, 괴롭고, 눈물과 고난의 골짜
기를 지나며 버겁고, 번아웃되어 포기하고
그저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막바지에 이
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짝퉁이 아닌 예
수님짜리 명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
니다. 새벽 여명 직전이 제일 어둡고 춥습
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상
상치 못한 최상의 좋은 일이 머지않아 일
어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서 우리 앞길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눈물 흘리며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수님짜리 믿
음의 실력을 세상 앞에 보란 듯이 보여주
세요!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라”(고전2:9).
하나님은 우리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
로 반드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
니다. 말씀으로 연단되고 기도에 전혀 힘
쓰는 이 시대 최고의 실력을 가진 예수중
심교단의 명품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동행
에 대한 간증과 표적(스티그마)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우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메디스텐 즐기세포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확실한 약속

응답받는 3대 비결을 아는가? 방법을 알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법!
첫째는 절박함이다. 절박(切迫)은 끓을 절
(切), 닥칠 박(迫)으로, 목숨을 끓고 싶을 정
도로 일이 다급함을 말한다. 곧 죽게 됨을

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될 위
기 앞에서 에스더의 기도는 절박했다.
둘째, 갈망하는 마음이다. 갈망(渴望)은 목
마를 갈(渴), 바랄 망(望)으로, 성경의 표현대
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을 말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배회하는 다
윗의 기도는 그야말로 갈망하는 기도였다.
셋째, 애통하는 심정이다. 애통(哀痛)이란

슬플 애(哀), 아플 통(痛)으로, 몸과 마음이
아플 정도로 슬퍼하는 것이다. 무자한 한나
의 기도가 그것이다.
절박한 기도, 갈망하는 기도, 애통하는 기
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까? 반드시 응답하
사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
신다. 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봉우 이초석 목사

어린이와 같이

얼마 전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강원
도 정선으로 인생 첫 캠핑을 떠났다. 가
는 날이 장날이라고, 강원도에 들어설 무
렵 비바람이 불어댔다. 그때 초등학교생인
첫째 아이가 기대하던 캠핑이 걱정이 되
어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 날씨 좋아지
게 기도해요!”
사실 출발 전 날씨 예보를 보았지만 비
올 때는 텐트 안에만 들어가 있자는 생각
으로 아내와 난 일종의 체념을 한 상태였
는데, 아이의 말을 듣고 아차 싶어 함께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했다. 그러자 아
이도 함께 방언 기도를 간절히 했다. 한
참 기도를 하고 있으니 갑자기 비가 우
박으로 바뀌어 차를 마구 두드렸다. 이
런 일은 또 처음이라 아이와 함께 기도를
잠깐 멈추고 세차게 떨어지는 우박을 보
며 신기해했다.
그러다 다시 기도를 이어 하였는데 점점
세차게 쏟아지던 비가 멈추고 구름이 낀
흐린 날씨가 되었고, 목적지에 도착하니
이번엔 화창한 날씨가 되어 산 정상 즈음
에서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기도할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로 인해 기
도하고 응답을 받았다. 아이에게 정말 기
특하다며 칭찬해주니,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는 멈추고 날
씨는 좋아질 거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
다며 뿌듯한 표정이다.
‘아차, 나도 초등학교 시절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
성을 들려주셨던 때가 있었지!’ 그러다
어느 샌가 그러한 경험이 사라지고, 마음
속에는 성령님의 음성보다는 내 목소리
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아이에게 기도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성
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와 아내에
게도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어린이와 같은 심령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
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
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눅18:17).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friendly

